

목장 성경공부

2008 년 7 월 둘째 주

제목: 큰 문제와 더 큰 해결책

성경구절: 이사야 7 장 1 절-13 절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왕 시절 나라가 외침으로 인해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하루 동안에 유다 백성 120,000 명을 죽이고 200,000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강탈한 후 사마리아로 철수했던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악한 왕 아하스에게 보내 국가의 큰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큰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 먼저 저들의 존재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 주시며
2.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어디서건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심증적, 물증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한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당시의 신생강국이었던 앓수르를 향해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며 도움을 청하여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

1. 당신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웃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2. 당신은 인경의 역경에서 승리했던 간증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됩니까?
3. 지금 내 자신에게나 혹은 이웃에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목원들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